

고흥군, 전남도립도서관 '찾아가는 이야기 창작소' 선정

고흥군립중앙도서관, 어린이 대상 체험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



고흥군립중앙도서관 전경 사진

/고흥군 제공

고흥군은 전라남도립도서관이 주관하는 '2026 찾아가는 이야기 창작소' 공모사업에 고흥군립중앙도서관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라남도립도서관으로부터 감사비 전액을 지원받아 진행되며, 고흥군립중앙도서관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나도 시인, 우리 숲 파란노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이야기 창작가가 되어 지역 작가와 함께 동시를 짓고, 푸른 숲과 파란 바다를 찾아 자연을 온몸으로 느껴보는 북데이트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여 어린이들은 자연 속 체험과 창작 활동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문화체육과 도서관운영팀(☎ 061-830-69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시니어 의사 채용으로 의료 공백 대응

보성군은 전국적인 공중보건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를 채용해 오는 6월 1일부터 보건소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문의 취득 후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등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은 시니어 의사는 주민 진료를 비롯해 국가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보건의료사업 전반을 수행할 예정이다.

군은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공중보건의를 우선 배치하고 응급실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야간·휴일 취약 시간대 응급 대응체계 유지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보성아산병원과 별교삼호병원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지속하며 지역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에도 나서고 있다. 군은 응급의료 지원과 공중보건의의 우선 배치로 야간·휴일 의료 공백 최소화에도 나선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 농촌·농어업 대전환 정책 대응 보고회 개최

해남군은 28일 현 정부의 농촌·농어업 대전환 정책을 공유하며 우리군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

10개 부서장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정부의 농촌·농정 정책의 방향과 흐름 속에서 농어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해 민선 9기 정책에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고회에서는 ▲농어촌 소득확대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어업 첨단화 및 미래농업 기반 조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지속가능한 농어업 구조 전환을 위한 26개 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햇빛소득마을 조성 △농촌인력 안정화 △거점 불류기지 구축 △농촌융복합 산업 활성화 △김 가공우수 재이용 시스템 개발 △스마트팜 확대 △청년농 육성 △농업 R&D 추진 등 주요 과제를 선정해 중앙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박종욱 기자

진도군, '페달 밟아 모은 정성, 이웃 사랑으로!'

장흥군, 재난 취약시설 대상 표본 합동점검 실시

완도군, 치유객 80만 명 방문 '차별화된 치유산업 꾀한다!'

진도군은 최근에 '2026년 자전거의 날 기념 자전거 안전체험교실' 행사를 진행했다.

안전 체험 교실에서는 '자전거 물품 알뜰 장터'도 운영했는데, 안전 체험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 용품을 스스로 가져와 판매하며, 자원 재활용의 가치를 배우는 것은 물론, 경제 활동의 기초를 익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알뜰 장터의 운영으로 수익금 2,037,000원이 발생했으며, 수익금 전액은 '진도군 자전거안전체험교실' 명의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됐고, 기탁금은 관내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기탁식에는 김미순 진도군수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고, 진도실업고등학교 1학년 김영준 학생이 대표로 참석해 수익금을 기탁했다.

/이가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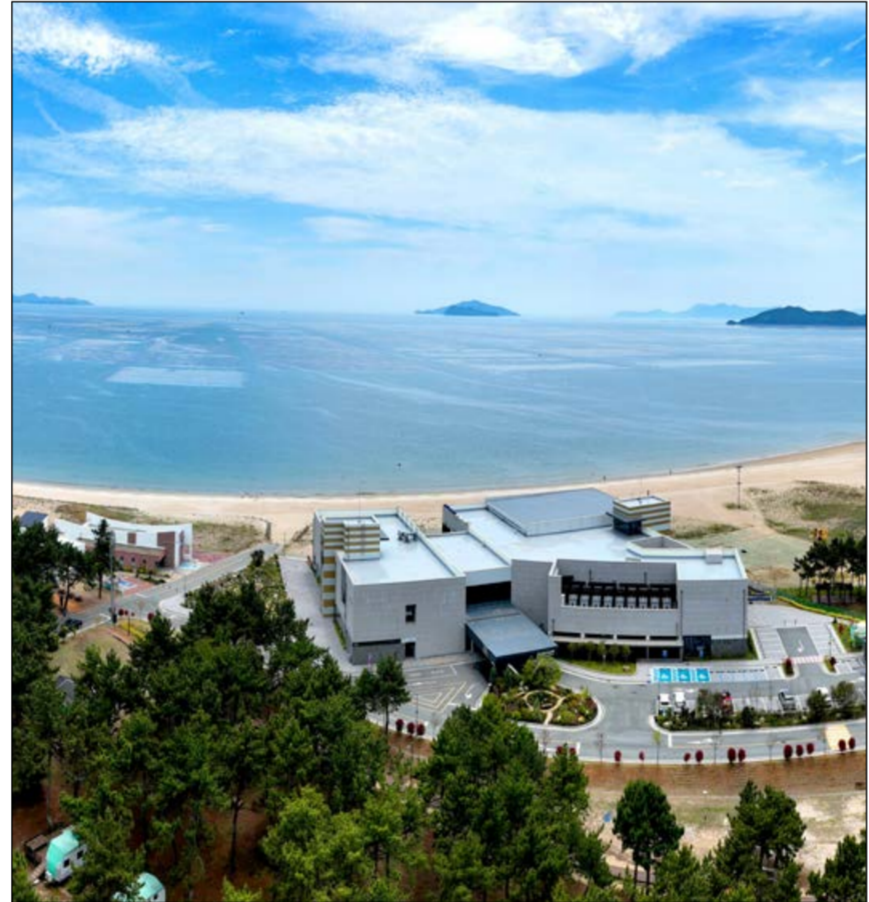
장흥군은 지난 27일 장흥문화예술회관과 장흥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026년 집중안전점검 표본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집중안전점검 기간을 맞아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는 전라남도 안전점검팀 및 자문단을 비롯해 장흥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남남부지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건축·소방·전기 등 분야별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점검반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확인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지적 사항은 소관 부서와 시설관리주체에 즉시 전달해 신속한 보완 및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정근 기자



완도 해양 치유센터 전경 사진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치유'를 통해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지역 소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당일치기 관광이 아닌 일정 기간 완도에 머무르며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체류형 치유'로 생활 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국내 최초 해양치유 시설인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있다.

완도해양치유센터에는 해수, 해조류, 머드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16개의 테라피실이 있으며, 해양치유는 전신 이완, 스트레스·통증 완화, 혈액순환, 피로 회복, 호흡기·알레르기 증상 완화, 수면 장애 개선, 피부 진정 등에 도움이 된다.

5월 27일 기준 센터에는 14만 6백여 명이 방문했고, 해양 기후·문화 치유와 맨발 걷기를 하고 청산 해양치유공원, 약산 해안치유의 숲 등을 찾은 치유객 수는 65만 7천여

다녀갔다. 치유객 유입은 숙박과 식음, 관광 소비로 이어지며 2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왔다.

군은 생활 인구를 늘려야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치유객 수보다 '머무는 시간'에 주목했다.

해양치유 활성화와 효과 검증,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1박 2일부터 5박 6일로 구성된 '장기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은 바다, 숲, 섬 등 완도 전역을 하나의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여 해양치유, 해양기후치유, 산림치유, 섬 투어, 해양 활동(전복 채취 등), 치유 식단 체험 등이 진행된다.

군은 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건강 상태와 심리 변화를 분석해 치유 효과를 검증하는 '완도 해양치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이가영 기자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구례군 로컬마켓
<https://smartstore.naver.com/guryeshop>